



도쿄 · 오사카 증권거래소 합병 승인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금융청(FSA)은 지난 11일 도쿄증권거래소(TSE)와 오사카증권거래소(OSE)의 합병에 따른 ‘일본 거래소그룹’의 발족을 승인하였음.

- 시가총액 규모 세계 4위인 도쿄증권거래소와 33위인 오사카증권거래소의 합병으로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증권거래소를 발족할 예정
 - 2012년 9월 말 현재 도쿄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3조 3,000억 달러, 오사카증시의 시가총액은 2,000억 달러이며, 합병 시 런던 증권거래소 규모를 넘어설 전망
 - 한편, 일본거래소 CEO로는 도쿄증시의 사이토 아쓰시(齋藤淳) 사장이 취임할 예정임.
- 현물주식 시장은 내년 7월까지 도쿄증권거래소에 집중할 예정이며, 선물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오는 2014년 3월까지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일원화한다는 계획임.

■ 한편, 이번 증권거래소들의 합병은 거래소 규모 확대와 더불어 한국이나 싱가포르 중심인 아시아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목표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임.

- 일본거래소그룹 산하에는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, 일본증권 클리어링기구(JSCC: 결제 업무 기관), 도쿄증권거래소 자율규제법인 등 4개의 자회사를 둘 예정임.
 - 도쿄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
- 한편,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도쿄거래소와 교차거래를 추진하는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이번 일본의 거래소 간 합병으로 양국 간 교차거래는 시한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임.

(요미우리 외, 12/11)